

오전(1부, 노량진) 6시

오전(2부) 7시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주일에배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Jesus Centered News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26년 5월 31일 (제 1360 호)

1부(오전) 7시

2부(오전) 10시

3부(오후) 3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주일에배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무조건 씨를 뿌려라

지난 주일, 인천교회 당회장실로 한 사람이 찾아왔다. 그는 미국에서 목회하고 있는 목사라고 자신을 소개했는데, 그의 말 인즉 35년 전 우리가 보낸 설교 카세트테이프를 듣고 은혜를 받아 신학을 했고, 목사가 되었다고 한다.

나는 그분의 말을 듣고 생각이 깊었다. ‘씨앗 하나가 떨어져 이렇게 열매를 맺는구나.’

설교 카세트테이프를 보낼 때는 누가 듣는지도 몰랐고, 어디로 흘러가는지도 몰랐다. 그러나 그것이 한 영혼의 가슴에 심겼고, 그리고 마침내 한 목회자를 탄생시켰다. 성경은 말씀하신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전11:6).

씨를 뿌리는 사람은 어느 씨가 열매를 맺을지 모른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씨를 뿌리지 않으면 어떤 열매도 거둘 수 없으니 열심히 뿌리라는 말씀이다. 시간으로 뿌리고, 물질로 뿌리고, 기도로 뿌리고, 나가 말씀으로 뿌리라는 거다.

내가 ‘대구집회 해라’, ‘부산집회 해라’, ‘제주도집회 해라’, ‘청주집회 해라’ 하는 것은 무조건 씨를 뿌리기 위함이다. 씨를 뿌렸다고 다 열매를 맺겠는가. 더러는 가시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사람들이 다니는 땅에 떨어져 밟히기도 하고, 새가 쪼아먹기도 하지만, 나를 찾아온 그 사람이 목사가 되었던가 어디선가는 열매로 거두기에 그런 것이다.

내가 지구 반 바퀴를 돌아 해외에 나가 복음을 전하지만, 그 사람들 모두가 믿음을 소유하지는 않는다. 그렇다고 안 나가면 어찌 될까.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한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고전3:6)라고 바울이 말했다. 우리가 할 일은 씨를 뿌리는 일이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뒷일일랑 걱정 말고, 우리는 우리가 할 일만 잘하자. 가든지, 보내든지 하자. 민들레 흩씨도 바람 부는 대로 날아가 꽃을 피우는데, 우리가 뿌린 씨앗이 헛 것이 되겠는가.

결과만이 과정을 대변한다

기적은 기적처럼 다가올 수 없고, 과정 없는 결과도 없습니다. 최근 우리는 대구 엑스코 컨벤션홀에서 열렸던 대구예수전도집회를 목도했습니다. 앉을 자리가 부족하여 바닥에 앉아야 할 정도로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몰린 집회였습니다. 우리는 그 결과를 확인하며 대구예수중심교회가 어떻게 집회를 준비해왔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모든 성도들이 3월 1일부터 집회 바로 전날까지 75일 동안 교회에 모여 작정기도를 진행했고, 거리마다 전봇대에 배너광고를 달고, 노선버스에 현수막을 달아 광고하며, LED 차량에 집회 홍보영상을 틀며 도시 곳곳을 누볐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자주 강조하시듯이 아무리 좋은 상품이 있더라도 광고하지 않으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하고자 하는 자를 돕는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수많은 국내외 집회들을 진행하며 동일한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절대 거저 되는 일은 없습니다. 목사님이 가신다고 절로 사람이 모이지 않습니다. 집회를 배설한 주최측이 기도하고, 애쓰고 수고하며 부지런히 광고했을 때, 그러한 과정이 성공적인 결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결과로 우리는 그 지난한 과정을 엿보게 되는 것이지요.

계획하고 준비하지 않는 자, 그는 곧 망하기로 작정한 자라고 목사님은 당신의 잠언을 통해 자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88체육관에서 수요일예배가 진행되는 날이면 오후 5시에 직원과 봉사자들이 모

가는 시점에 집회 현장을 방문하셔서 중앙계단을 더 넓히라고 지시하셨지요. 부흥사로 40년 가까이 쌓아온 시간과 노후가 있으시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확실한 길을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예측 불가한 일들로 어지러워도 목사님 말씀처럼, 결과만이 과정을 대변할 수 있고, 실제 없는 거짓은 진실 앞에 드러납니다. 진실과 거짓은 그 결과가 말해줍니다. 잠시 잠깐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나 그조차도 시간이 지나고 때가 되면 다 결과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오늘은 많은 어제가 쌓여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손바닥으로 해를 가릴 수 없고, 눈 가리고 아웅 역시 통하



2026 대구예수전도집회(5월 15일 대구엑스코 컨벤션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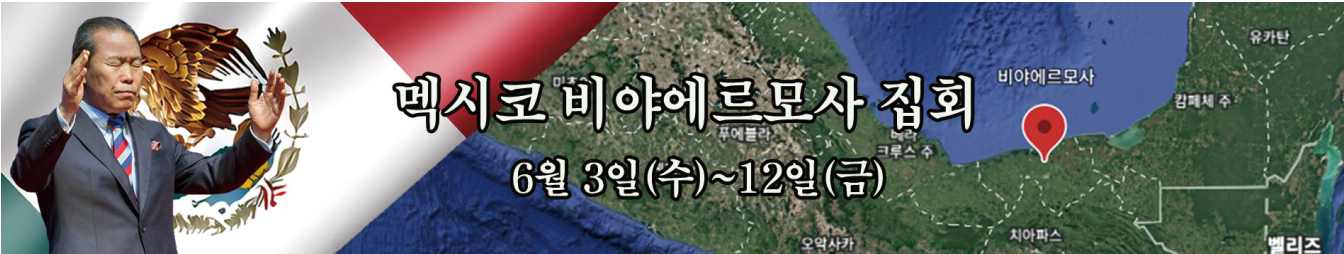
면 누가 알겠습니까? 매일 기도로 발을 갈고, 광고하며 힘쓰고 애쓴 과정이 있었기에 엑스코 컨벤션홀이 가득 차는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는 곧 진행될 멕시코(Mexico) 비야에르모사(Villahermosa) 집회도 이미 작년 봄, 멕시코 살띠조(Salttillo) 집회를 마치고 몬테레이(Monterrey) 호텔 로비에서 마리오(Mario) 목사님과 함께 집회 참석을 독려하는 영상메시지를 녹화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각종 매체를 통해 광고하고 있습니다. 집회의 성공은 결국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보내주셔야 가능한 일이지만, 그전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 기도로 준비합니다. 또한 토요일 밤에 주의 종들이 노량진교육관에 모여 주일예배를 위해 역시 기도로 준비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는 봉사는 섬김은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항상 예배가 있는 날이면 말은 이들에게 “오늘도 최선을 다하자!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 다. 점검부재가 사고의 원인이다.”라는 빨간판을 보내십니다. 결코 대중을 용납하지 않으시고, 당신 스스로 점검하고 확인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으십니다. 대구 집회 때도 전날 저녁, 설치가 마무리되어

지 않습니다.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매 순간을 감사와 인내로 감내하며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실함만이 진실 앞에 당당할 수 있는 길입니다. 목사님은 그러한 일체의 비결을 삶으로, 목회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다른 방법은 모든 채, 외골수처럼 오직 예수만을 붙들고, 그분의 명령대로 달려온 삶이기에 더욱 그러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며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결과만이 과정을 대변합니다. 할렐루야!

한은택 목사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고전2:9~12)



명심하라, 시간의 부자(富者)는 없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엡5:16). 세상에 돈의 부자는 있어도 시간의 부자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셨습니다. 왕도, 재벌도, 어린아이도 똑같이 하루 24시간을 갖습니다. 그 시간은 그날 다 써야 합니다. 저축했다가 다음에 쓸 수 없는 것이 시간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같은 24시간으로 놀라운 큰일을 이루고, 어떤 사람은 긴 세월을 살고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이 차이는 시간의 양이 아니라 ‘생각의 차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실 때 며칠이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광야에서 끊임없이 불평했습니다. ‘물이 없다’, ‘먹을 것이 없다’, ‘차라리 애굽이 낫다.’ 등등, 늘 부정적이었습니다. 더욱이 가나안을 정탐했던 열두 정탐꾼 중 열 명이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말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말에 동조했습니다. 결국 그들의 부정적인 생각이 이스라엘 전체를 묶어버려 며칠이면 갈 길을 40년이나 돌게 되었습니다. 시간을 잃게 만든 것은 광야가 아니라 바로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는데 자기 생각을 고집하며 다시스로도 망났습니다. 순종했으면 빨리 끝날 일을, 그는 풍랑을 만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며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고집스러운 생각이 인생을 돌아가게 만든 것입니다. 탕자는 아버지를 떠나면 자유롭고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자기 생각대로 살다가 모든 것을 잃고 돼지우리에게까지 내려갔습니다. 한참이 지난 후에야 그는 잘못을 깨닫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옵니다. 잘못된 생각, 세상적인 생각이 인생의 시간을 허비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생각보다 무서운 파괴력은 없다

그렇습니다. 생각이 사람의 시간을 결정합니다. 원망과 두려움은 시간을 잡아먹습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늘 뒤를 돌아보게 하여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행동하지 않는 자는 시간을 죽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창조적인 생각,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중풍병자를 메고 온 네 친구를 보십시오.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예수님께 갈 수 없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포기했을 것입니다. “다음에 오자.”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창조적인 믿음을 가졌습니다. 지붕으로 올라가 지붕을 뜯고 병

자를 예수님 앞에 달아 내렸습니다. 길이 막히자 새로운 길을 만든 것입니다. 그들의 긍정적인 생각, 창조적인 생각이 중풍병자가 고침 받는 시간을 단축한 것입니다.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키가 작아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 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 다. 사람들 틈에서 불평만 하지 않았습니 다. 앞질러 달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갔습니 다. 창조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그 나무 아래서 삭개오를 부르셨고, 그의 집에 구원이 임했습니다. 생각을 바꾸

니 인생의 시간이 바

뀐 것입니다.

요셉은 감

옥에서

도



총회장 이초석 목사

꿈을 잃지 않고 늘 긍정적인 생각으로 살

았고, 바울은 감옥에서도 세계 복음화를 꿈꾸었습니다. 몸은 갇혀도 생각은 갇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세계 복음화를 목표로 두고 ‘내가 영어를 못하는데 어찌지?’, ‘스페인어도, 러시아어도 못하는데 어떻게 나가?’ 했더라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간접자본을 활용하면 되지. 통역관을 쓰면 되겠다.’ 해서 일을 추진하니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자를 도우사 이렇게 세계 70여 개국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고, 명성(名聲)이라고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적인 생각은 단순한 인간의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와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사55:8~9).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

드셨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창조성이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DNA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없는 길에서도 길을 보고, 문제 속에서도 가능성을 보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원의 고갈을 문제 삼지만, 아이디어의 고갈이 세상을 침식시키는 것입니다. 아이디어는 창조적인 생각이요, 이는 상상력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단순한 계산 능력만 주신 것이 아니라 꿈꾸는 능력, 바라보는 능력, 믿음으로 그려보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상상력입니다.

사과 속의 사과 씨는 헤아릴 수 있지만 사과 씨는

안에는 있는 사과는 헤아릴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상상력을 품는 자들로

인해 우리가 문명의 혜택을 누리고 사는 것 아닙니까? 저는 저의 상상력의 전원이 꺼질까 늘 노심초사합니다. 제가 지금 세계 70여 개국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세계교구’라는 상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광명 철산리 지하 교회에서 한 명을 놓고 목회를 시작할 때, ‘세계교구’라는 말에 모든 자들, 저를 사랑하는 스승마저도 비웃었지만, 저는 늘 상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때가 되니 정말 이뤄집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히11:1). 이 말씀은 믿음이 곧 보이지 않는 우리의 상상력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상상하고 기도로 현실화시키는 것이 믿음 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앉아서 괜히 이상한 잡생각일랑 하지 말고, ‘나도 좋은 집에서 살아봐야지’, ‘나도 남들처럼 좋은 차 타야지’, ‘나도 사장이 되어야지.’ 이렇게 상상을 하

며 기도하세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응답 해주십니다. ‘믿음=상상’입니다.

하나님은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시81:10)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후원자가 도와주신다고 하는데 매일 그 자리고, 매일 그 밥에 그 반찬입니까? 믿음의 선진들을 보세요. 그들은 상상의 나래를 한없이 원 없이 펴서 위인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늘의 뭇별을 보며 자손을 상상하더니 열국의 아버가 되었고, 야곱은 무늬 없는 양들 앞에 버드나무와 신흥나무와 살구나무를 놓고 얼룩지고 점 있는 양의 새끼가 나올 것을 상상하더니 상상한 대로 거부가 되어 금의환향하였습니다. 남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상상하고 기도하면 그대로 됩니다.

생각의 전환이 없으면 미래는 없다

그런데 이런 우리의 생각을 무너뜨리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란 높은 늘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건 안 돼.’, ‘넌 그거 못해.’, ‘포기해.’, ‘그거 해봐야 소용없어.’라며 우리 생각을 무너지게 하여 포기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생각을 지켜야 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생각에서 나기 때문입니다(잠4:23). 세상 모든 것은 지켜주는 자가 있지만, 생각만은 내가 지켜야 합니다. 그러므로 부정적인 생각, 나쁜 생각, 악한 생각, 두렵다는 생각이 등지를 틀지 못하게 하세요. 부정적인 생각을 오래 품으면 두려움이 되고, 두려움은 행동을 묶고, 결국 시간을 허비하게 만듭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 생각을 떨쳐버리고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긍정적인 생각이 들면 창조적인 생각이 살아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똑같은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불평과 두려움으로 시간을 낭비하고, 어떤 사람은 믿음과 창조적인 생각으로 시간을 늘려갑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인생을 광야로 만들고, 하나님의 생각은 광야에서도 가나안을 보게 합니다.

시간을 늘리는 비결은 시계를 붙드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품고, 믿음으로 상상하고, 창조적으로 행동하는 데 있습니다.

멋지게 살고 싶으시죠? 잘 살고 싶으시죠? 건강하게 살고 싶으시죠? 생각의 전환이 이뤄지면 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막9:23). 할렐루야!

:: 객원컬럼 ::

:: 영생에 이르는 길 ::

분수(噴水)가 되어라

사랑에는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하나는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순리적 사랑’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마치 거대한 폭포수가 낙하하듯, 혹은 하늘에서 단비가 내리듯 자연스럽고 강렬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보다 더 크신 사랑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기도 전에 그분은 폭포수보다 깊고 힘차게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십자가는 그 거대한 사랑의 물줄기가 정점에 달한 확증입니다.

그러나 반대 방향이 있습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 올리는 사랑입니다. 슬프게도 이 사랑은 가만히 있으면 아래로 가라앉고 맙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늘 내 일, 내 가정, 내 유익을 앞에 두고 우선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분수(噴水)’와 같아야 합니다. 분수가 중력을 거스르고 하늘을 향해 물을 뿜어 올리기 위해서는 강력한 모터의 압력이 필요하듯, 우리의 사랑도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우리 신앙에는 지식, 감정, 의지의 요소가 공존합니다. 때로는 말씀을 아는 지식으로 즐겁고, 때로는 뜨거운 감동을 받아 감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의 시험대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 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 산을 오르는 아브라함에게 무슨 지적인 이해가 있겠고, 아들을 바쳐야 하는 극한의 고통 속에 무

슨 기쁨의 감정이 남아 있었겠습니까? 지식도, 감정도 멈춰버린 절망의 순간에 아브라함을 움직인 것은 오직 ‘의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사실만 붙들고 발을 내디뎠던 그 의지적 순종을 보시고서야 하나님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며 여호와 이레의 복을 허락하셨습니다(창22:12).

시편 111편은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노래입니다. 나라도 잃고 성전도 파괴되었던 절망의 시간을 통과한 그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의지’였습니다. 시인은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였으니(4절)”라고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은 현실의 급박함 때문에 수없이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하지만 시편 111에서 노래합니다. 광야에서 양식을 주셨던 일(5절),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던 일(6절)을 기억해내라고 말합니다.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인 이유는 그 뿌리가 하나님의 생명수를 향해 뻗어 나가는 ‘의지적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폭포수 같은 하나님의 사랑에 분수 같은 의지의 사랑으로 응답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은 내 삶의 의지의 모터를 다 돌려 순종의 물줄기를 뿜어 올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늘을 향해 힘차게 사랑의 분수를 뿜어 올리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영국 목사**

움직이는 신앙, 달리는 신앙

요즘 동료 전도사들과 ‘예수중심 러닝 크루’를 조직하여 달린 후 인증샷도 공유하고, 마라톤 대회에도 종종 출전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잘 관리된 ‘주의 종’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것이 육체”라는 말씀을 듣고도 관리하지 않는 것은 주의 종으로서 무책임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움직여야 하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운동할 때 엔도르핀(고통 완화), 도파민(의욕 상승), 옥시토신(충만감), 세로토닌(평안함) 등 다양한 행복 호르몬이 나오게 하신 것도 창조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또한 언제나 동적입니다.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셨으며, 일하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육체는 움직일 때 낡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건강해 집니다. 몸을 움직이고, 힘들어도 사명

의 자리로 나아갈 때, 전도하러 거리로 나갈 때 우리 안에 기쁨과 새로운 에너지가 넘쳐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신앙생활을 ‘땀대를 향한 달리기’로 인식했습니다(갈5:7, 빌2:16). 그러나 죄는 우리 몸과 마음을 무겁게 만들어 주저앉히는 ‘모래주머니’와 같습니다.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이 얽매이기 쉬운 죄를 과감히 벗어 버리고, 매일 기도와 전도의 달음박질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움직여야 영도 살고 사명도 삽니다.

기도원 집회에 이어 필리핀 집회, 대구 집회까지 하신 목사님을 볼 때마다 늘 신선한 도전을 받습니다. “달리던 말은 달리다 죽어야 한다.”는 말씀이 유독 가슴에 깊이 와닿는 요즘입니다.

우리,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영육의 스위치를 켜고 힘차게 달려갑시다.

문천명 전도사



:: 깊은 곳에서의 울림 ::

:: 생명의 말씀 ::

합심 기도의 위력

어느 날이었습니 다. 대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가 울면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진실아, 나 회사에서 잘리게 될 것 같아. 나 좀 도와줘. 날 위해 제발 기도 좀 해줘!” 순간 저는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 친구는 남부러울 것 없이 자라, 좋은 직장에 다니며 늘 승승장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존심이 강하고 의심도 많아, 제가 24년 동안 복음을 전해도 좀처럼 마음을 열지 않던 친구였습니다. 그랬던 그녀가 자존심을 내려놓고 울면서 제게 전화해 도움을 구한 것입니다.

그때 제 마음에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8절 말씀이 떠올랐습니 다. 한밤중에 벋을 찾아가 떡 세 덩이를 빌려 달라고 강청했던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문은 이미 닫혔고 아이들도 누워있었지만, 그는 끝까지 강청했고 마침내 필요한 것을 얻게 됩니다. 저는 제 친구 역시 밤중의 그 사람처럼 절박한 심정으로 제게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함께 기도하자! 두 사람이 합심하면 응답하신다고 하셨어! 이번 일을 통해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될 거야!”

그날부터 우리는 한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

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눅18:27)는 말씀을 친구에게 보내며, 사람의 눈에는 끝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믿음을 심어 주었습니다. 친구는 태어나 처음으로 매일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며 마음을 지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친구를 건져주셨습니다. 구조조정의 위기 속에서도 살아남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이후로도 크고 작은 문제들이 닥칠 때마다 우리는 합심하여 기도하였고, 그때마다 길이 열리고 문제가 풀려가는 것을 보며 친구는 말했습니다. “진실아, 예수님은 정말 살아계신다. 이제는 내 가족과 친구들을 전도할 거야. 날 위해 기도해줘서 정말 고마워!” 24년 만에 예수님을 만난 그녀는 지금 하루하루를 감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혹시 절체절명의 순간에 놓여있습니까? 함께 나누며 기도할 사람이 있는지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나와 마음이 맞는 사람과 합심하여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마18:19). 반드시 기적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김진실 사모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얼마 전 어버이날, 자녀들에게 소소한 선물을 받았다. 그중에 카네이션 화분꽃은 못다 핀 꽃봉오리들이 많아 아직도 싱싱하니 볼 때마다 흐뭇하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시절, 학교 활동으로 만들어진 꽃과는 감흥이 남다르다. 훌쩍 커버린 세 자녀가 서로 의논하고 분담하는 자발적인 선물들이라서 더없이 가치가 느껴진다. 화분꽃을 사들고 온 둘째아들이 하는 말이, “카네이션 꽃을 조금이라도 더 오래 보시라고 고민 좀 했어요. 그래서 꽃봉오리가 아직 덜 핀 싱싱한 걸로 골라봤어요!” 한다. 이제는 의무감이 아닌, 자기 나름의 고민과 자발성이 들어간 일이라 사람을 감동시킨다. 부모가 받아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도리어 흐뭇해한다. 받기만 하는 사랑이 아닌, 주는 사랑을 점점 배워가는 것 같아 보람이 있다.

자녀들이 자라나는 공교육 기관에선 부모님에 대한 올바른 도리와 이치를 가르치니 어릴 때엔 의무적으로 시작하기도 한다. 마치 몽학선생이 신앙 초보자들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제약조건(율법) 앞으로 이끌어나 가는 것과 같다. 처음엔 의무감으로 시작할 수 있으나, 점점

상대를 기쁘게 해주는 것이 더 큰 기쁨이고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아가며 성숙해가는 거다. 이젠 의무감에서 사랑으로 행동양식이 바뀌었다.

누군가는 기독교가 ‘노예종교’와 같다고 말했다. 어떤 도덕법의 제약 안에서 자유 없이 의무적으로 살아가는 약자들의 종교라고 말이다. 거기서 해방 받으라고 촉구한다. 그런데 그것은 진정한 자유를 모르고 하는 말이다.

성경은 말씀하신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요8:32). 그런데 그 진리이신 예수님(요8:36, 요14:6)을 만나면, 이젠 더 이상 의무감에 얽매이지 않고 사랑으로 그 법을 따라가게 만드신다. 상대의 뜻대로 행하는 건데도, 제약 조건들을 도리어 기쁘고 감사하게 수긍하니 진짜 자유를 맛본 거다. 예수님은 우리의 실수를 채근하거나 형벌로만 몰아세우지 않으시고 넓게 용서하시고 받아주신다. 늘 새로운 기회로 우리에게 자발적인 자유를 주신다. 그러니 내 삶의 주인에게 즐거움을 선사하는, 그 즐거움을 점점 더 알아가는 즐거운 여정 길인 것이다.

송직화 목사

:: 일본에서 온 편지 ::

:: 귀를 기울이세요 ::

말(기도)한 대로 이루어진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살전5:18).
우리 서동경교회가 방음공사 등 모든 리폼을 잘 마치고 1층으로 무사히 이전했습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계단이 없는 곳으로 이전을 생각하고 기도(말)해 왔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곳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는 어떤 형편에 처하든, 무슨 일이 일어나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양지를 만날 때 교만하지 않고, 음지를 만날 때 비굴하지 않으며, 어떤 상황에서라도 한결같이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만나는 고통과 고난은 하나님을 향한 눈을 열어주는 통로입니다. 눈이 열리면 길도 보입니다. 모든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데 감사하는 사람이 가장 복 받은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시편 103편 2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메말라가는 이유 중 하나는 받은 은혜와 축복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우리 삶에 베풀어주신 귀중한 축복들마저도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을 세어보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런지요?
지금 있는 자리가 혹시나 아픔과 상처의 자리일지라도 그 아픔을 통해 베풀어주실 은총을 생각해보십시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에 치료하는 힘을 불어넣으셨습니다. 말의

힘입니다. 우리 입의 말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부정적이고 꼬인 말이 아니라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우리 믿음의 말이 우리 앞길을 열어줍니다. 하나님께서도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정적인 언어로 실패하고 싶지는 않겠지요?
오늘도 믿음의 언어로 나 자신부터, 내 환경부터 축복하십시오.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의 약속(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입술에 믿음의 말, 축복의 말, 감사의 말로 넘치게 하십시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민14:28).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잠16:24).

서동경 예수중심교회 김경숙 목사

Good News

어느 마을에 평생 편지를 배달하던 늙은 우편 배달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동네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어떤 집에는 합격 통지서를, 어떤 집에는 병원비 고지서를 전달했습니다. 사람들은 편지 한 장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우편배달부는 낡은 집 앞에 멈추었습니다. 그 집에는 오랫동안 세상과 마음을 닫고 살던 한 노인이 있었습니

다. 우편배달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좋은 소식입니다.” 편지에는 오래전에 집을 떠난 아들이 쓴 짧은 글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먼저 용서를 구합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노인은 그 한 줄을 읽고 굳게 닫혔던 문을 열었습니다.
복음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멀어진 우리에게 보내신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부활로 새 생명의 길을 여셨습니다.
이 소식은 착한 사람에게만, 특정인에

게만 주어지는 초대장이 아니라 빈부귀천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지치고 상한 모든 영혼에게 주어진 은혜의 편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좋은 소식을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마음의 문을 조금만 열어도 주님은 책망보다 사랑으로 다가오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종교 하나를 더하는 것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말3:7).

상화평 목사

:: 치우치지 않는 저울 ::

끝까지 항해를 완주하게 하는 힘, 겸손

겸손은 생존의 지혜이자 신앙의 근본입니다.
삼국지를 보니 겸손하지 않으면 다 죽는다고 말합니다. 삼국지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긴 항해에서도 이 말은 진리입니다. 주역의 64괘 중 지산겸(地山謙)괘는 높은 산이 땅 아래로 자신을 낮춘 형상을 의미합니다. 이는 성경이 말하는 겸손과도 맥을 같이 합니다. 하나님은 낮은 곳으로 흐르는 물처럼, 자신을 낮추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오늘은 유비의 성패를 통해 보는 겸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겸손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입니다. 유비는 수십 년간 여러 군주 밑에서 자신을 낮추며 때를 기다렸습니다. 성경의 다윗 역시 사울 왕에게 쫓기는 긴 세월 동안 자신을 죽은 개나 벼룩처럼 낮추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겸손은 비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며 앞드리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야 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높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가장 위험한 순간은 겸손을 잃어버

린 성공의 때입니다. 그토록 겸손했던 유비도 황제가 된 후에는 신하들의 충언을 무시하고 독단에 빠졌습니다. 결국 관우의 복수라는 감정에 치우쳐 이릉대전에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성경은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전10:12)고 경고합니다. 사울 왕도 처음에는 겸손했으나 왕권이 견고해지자 교만해져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성공의 정점에서 내린 교만한 결정은 한순간에 모든 항해를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셋째, 진정한 겸손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주역의 지산겸이 산이 땅 밑으로 숙인 형상이듯, 성도의 겸손은 나의 의지와 고집을 하나님의 말씀 아래 두는 것입니다. 유비 곁에 조운과 진밀 같은 충신이 있었듯, 우리 곁에는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이 있습니다. 내 생각과 감정이 앞설 때, 그 음성에 순복하며 다시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자가 끝까지 살아남고 승리하는 입지전적인 인생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의 항해에서 가장 무서운 암초는 외부의 풍랑이 아니라 우리 내

면의 교만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지만, 겸손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끌어당기는 자석과 같습니다.
유비가 잃어버렸던 그 겸손, 주역이 말하는 지산겸의 지혜를 넘어,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우시다. 2026년, 낮은 곳에 머물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가 되면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겸손함으로 끝까지 완주하는 복된 항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여, 성공의 때에도 초심을 잃지 않고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낮추게 하소서. 내 감정과 고집이 앞설 때 멈춰 서서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겸손을 주소서. 2026년 한 해 동안 겸손의 허리띠를 매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게 하소서.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벧전5:5~6).
최연식 목사

서울성전 건축헌금 계좌안내

국민은행 026401-04-297823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 계좌 송금 시
성함과 소속구(교회) 순서로
기입해주세요

송현혜